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이수빈¹, 윤정원¹, 성미경², 이민경^{1,3}, 김예황³, 이정화^{1,3}

¹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의학과, ²마산대학교 치위생과, ³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Effect of oral health-related factors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college students

Su Bin Lee¹, Jeong Weon Yoon¹, Mi Gyung Seong², Min Kyung Lee^{1,3}, Ye Hwang Kim³, Jung Hwa Lee^{1,3}

¹Department of Biomedical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Dong-Eui University, Busan,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Masan,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Received: July 11, 2018
Revised: September 15, 2018
Accepted: October 15, 2018

Corresponding Author: Jung 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47340, Korea
Tel: +82-51-890-4239
Fax: +82-51-505-6878
E-mail: yamako93@deu.ac.kr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al health-related factors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jor, Health-related major, General major, and to provide primary data to improve the oral care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f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15 to December 1, 2017. All 363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completed a questionnaire. In total, 33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irty-one cases were excluded due to unreasonable respons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4.0.

Results: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major field of study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e major demonstrated significantly better result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 way to manage the or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universities to improve or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s desirabl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health policies and a national health care education curriculum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Oral health-attitude, Oral health-related factor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University student

서론

대학생 시기의 구강 건강관리 습관은 장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구강질환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구강건강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습득과 실천은 건강한 노후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¹⁾.

대학교에서 전공은 특정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을 습관화시켜 관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²⁾.

그러나 대부분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구강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수업에 결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대학생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³⁾.

또한 대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주변 대학환경,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공계열별 구강건강관련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Seong 등⁴⁾의 연구에서 치위생학 교육을 받은 치위생과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3학년 학생들에서 우식치아수가 감소하고 충진치아수가 증가하는 등 구강환경관리능력과 치주조직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었고, Ha 등⁵⁾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후 구강질환 예방법에 따른 인지수준이 증가되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관련 태도가 긍정적이고, 구강질환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보건계열과 일반계열 또는 치위생학과와 일반계열 대상자들을 2개의 군으로 나누어 구강건강을 비교하는 연구^{2,6,7)}가 수행되었으나 구강보건전문 교육을 받는 치위생학과 학생과 공중보건학 교육을 받는 보건계열 학생, 보건관련 교육이 없는 일반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대학교에서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⁸⁾.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제외한 보건계열, 일반계열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련 지식, 태도,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에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구강건강점검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므로 대학생 시기에 구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하여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관련 과목을 수강한 치위생학과 학생과 공중보건학을 수강한 보건계열 학생 및 보건 관련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일반계열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일반계열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승인 (DIRB-201705-HR-R-014)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power 0.95, 효과크기가 중간크기(medium size=0.15)로 하였을 때 245명으로 계산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363명으로 선정하였다. 단, 효과크기는 Kim⁹⁾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 효과크기를 0.15로 진행하였다.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31부를 제외한 총 33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5일-2017년 12월 1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에 답변하도록 요청하였다.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치위생학과와 구강보건교육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보건계열, 보건교육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일반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연구도구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련요인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Kim⁹⁾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대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대상자 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코드화하였고, 첨부한 설문내용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2문항, 자가 구취 인식문항 2문항, 건강행위 9문항, 전신건강행위 1문항, 구강건강행위 10문항, 구강건강관심도 2문항,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 각각 1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세부문항으로 구강보건지식 5문항, 태도 5문항, 실천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식, 태도, 실천 문항은 평균값을 산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설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강보건 태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76, 구강보건 실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62로 나타났다. 구강보건태도, 실천항목은 Likert 방식에 의한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구강보건지식은 '예' 2점, '아니오'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SPSS 23.0)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특성, 구강건강관련요인,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치위생학과에서 여자 98.2%, 남자 1.8% 나타났고, 보건계열에서 남자 50.9%, 여자 49.1%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열에서 여자 60.4%, 남자 39.6%로 나타났다($t=67.910, P<0.001$). 학년에서는 2학년 보건계열 43.8%, 치위생학과 36.7%, 일반계열 12.6% 순으

로 나타났고, 3학년에서는 보건계열 56.3%, 치위생학과 26.6%, 일반계열 39.6% 순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에서는 일반계열 47.7%, 치위생학과 36.7%로 나타났다($t=80.770, P<0.001$) (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련요인

일일 칫솔질 횟수는 '하루 2번 이하'에서 일반계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3번 이상'에서 치위생학과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44.993, P<0.001$). 칫솔질 방법은 치위생학과에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하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아래로 돌려가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일반계열 40.5%, 보건계열 37.5%로 높게 나타났다($t=113.975, P<0.001$). 치실 사용유무는 치실 사용군이 치위생학과에서 55.0%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계열에서 1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35.158, P<0.001$). 혀 클리너 사용유무는 혀 클리너 사용군이 치위생학과에서 36.7%, 보건계열 21.4%, 일반계열 12.6%로 치위생학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t=18.149, P<0.001$), 치간칫솔 사용유무는 치간칫솔 사용군

이 치위생학과에서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계열에서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14.554, P<0.001$) (Table 2).

3. 연구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는 치위생학과, 두 번째는 보건계열, 마지막 일반계열 순으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3).

4.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보건지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강건강관련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칫솔질 교육 경험유무($t=1.803, P=0.047$)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설명력이 28.0%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강보건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구강건강관련요인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field

						(N=332)
Category	Division	Dental hygiene	Health-related major	General major	χ^2	P-value*
Gender	Male	2 (1.8)	57 (50.9)	44 (39.6)	67.910	<0.001
	Female	107 (98.2)	55 (49.1)	67 (60.4)		
Total		109 (100.0)	112 (100.0)	111 (100.0)		
Grade	2nd year	40 (36.7)	49 (43.8)	14 (12.6)	80.770	<0.001
	3rd year	29 (26.6)	63 (56.3)	44 (39.6)		
	4th year	40 (36.7)	0 (0.0)	53 (47.7)		
Total		109 (100.0)	112 (100.0)	111 (100.0)		

*by Chi-square test.

Table 2. Factors related to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departments

						N (%)
Category	Division	Departments			χ^2	P-value*
		Dental hygiene	Health-related major	General major		
Number of brushings (One day)	Less than twice a day	39 (35.8)	73 (65.2)	83 (74.8)	44.993	<0.001
	More than 3 times a day	70 (64.2)	39 (34.8)	28 (25.2)		
Brushing method	Up and Down	0 (0.0)	1 (0.9)	5 (4.5)	113.975	<0.001
	Right-Left	0 (0.0)	29 (25.9)	51 (45.9)		
	Fones method	31 (28.4)	42 (37.5)	45 (40.5)		
	Rolling Method	78 (71.6)	40 (35.7)	10 (9.0)		
Use of floss	Yes	60 (55.0)	33 (29.5)	20 (18.0)	35.158	<0.001
	No	49 (45.0)	79 (70.5)	91 (82.0)		
Use of tongue cleaner	Yes	40 (36.7)	24 (21.4)	14 (12.6)	18.149	<0.001
	No	69 (63.3)	88 (78.6)	97 (87.4)		
Use of interdental brush	Yes	44 (40.4)	32 (28.6)	19 (17.1)	14.554	<0.001
	No	65 (59.6)	80 (71.4)	92 (82.9)		
Education for brushing	Yes	103 (94.5)	84 (75.0)	28 (25.2)	14.544	<0.001
	No	6 (5.5)	28 (25.0)	83 (74.8)		
		109 (100.0)	112 (100.0)	111 (100.0)		

*by Chi-square test.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칫솔질방법($t=2.462, P=0.014$), 혀클리너 사용유무($t=2.036, P=0.043$)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태도에 대한 설명력이 63.6%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천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강건강관련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치실 사용유무($t=2.432, P=0.016$), 치간칫솔 사용유무($t=2.258, P=0.025$), 칫솔질 교육유무($t=2.879, P=0.004$)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실천에 대한 설명력이 63.5%로 나타났다(Table 4).

고 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방어할 수 있는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습관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한번 형성된 습관이 고착되기 전에 올바른 건강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¹⁾.

대학생의 건강생활 실천이 성인기에 의료비 절감 및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생들은 주요 건강문제, 건강수준, 건강행동 및 관련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캠퍼스 내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요구가 높아져 교내에서 학생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⁸⁾.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학생 건강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건강행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므로 대학생의 건강 및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건계열 및 일반계열 대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더욱 대중화 할 필요성이 있다¹⁰⁾.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일 칫솔질 횟수는 ‘하루 2번 이하’에서 일반계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3번 이상’ 64.2%로 치위생학과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일일 칫솔질 횟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계열 학생들은 일일 칫솔질 실천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행태를 조사한 연구¹¹⁻¹³⁾와 유사한 결과로 일일 칫솔질 횟수가 구강건강 환경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계열 학생들의 칫솔질 실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여부를 분석한 결과, 치위생학과가 치실, 혀클리너, 치간칫솔 3가지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¹⁾의 연구에서 구강관리용품 사용이 치위생학과 62.5% 일반계열 37.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Lee 등¹⁴⁾의 연구에서도 보건계열 44.1%, 비보건계열 29.6%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Lee 등¹⁵⁾의 연구결과에서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이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들보다 칫솔과 치약 외의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수업시간에 습득한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수준 향상에 의한 결과라 사료되며, 보건계열, 일반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직접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습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을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은 치위생학과, 보건계열, 일반계열 순으로 나타나 이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 및 태도는 밀접한 영향이 있고¹⁶⁾,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진다고 보고한 Kim

Table 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oral health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respondents

Category	Dental Hygiene (N=109)	Health-related major (N=112)	General major (N=111)	F	P-value*
Knowledge	1.95±0.08 ^c	1.86±0.13 ^b	1.76±0.16 ^a	55.316	<0.001
Attitude	4.53±0.36 ^c	3.73±0.37 ^b	3.25±0.38 ^a	297.804	<0.001
Practice	4.32±0.43 ^c	3.25±0.43 ^b	2.79±0.54 ^a	296.440	<0.001

*by the one-way ANOVA at $\alpha=0.05$.

a<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4. The effect of oral health related factors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Category	Knowledge			Attitude			Practice		
	B	t	P-value*	B	t	P-value*	B	t	P-value*
Departments	0.110	6.750	<0.001	0.602	12.849	<0.001	0.745	12.295	<0.001
Number of brushing	0.009	0.665	0.506	0.036	0.911	0.363	0.065	1.277	0.202
Brushing method	0.008	0.419	0.676	0.128	2.462	0.014	0.094	1.396	0.164
Use of floss	0.017	1.009	0.314	0.052	1.072	0.284	0.153	2.432	0.016
Use of tongue cleaner	-0.031	-1.690	0.092	0.106	2.036	0.043	-0.065	-0.961	0.337
Use of interdental brush	0.015	0.879	0.380	0.049	1.003	0.317	0.143	2.258	0.025
Education for brushing	0.034	1.803	0.047	0.005	0.089	0.929	0.220	2.879	0.004
	R ² =0.306 Adj.R ² =0.280 F=11.723 P<0.001			R ² =0.649 Adj.R ² =0.636 F=49.241 P<0.001			R ² =0.635 Adj. R ² =0.623 F=46.555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⁸⁾, Park 등¹⁶⁾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구강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보건지식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칫솔질 교육경험 유무($P=0.047$)이었고, 구강보건태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칫솔질 방법($P=0.014$), 혀클리너 사용유무($P=0.043$)이었으며, 구강보건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치실 사용유무($P=0.016$), 치간칫솔 사용유무($P=0.025$), 칫솔질 교육경험 유무($P=0.004$)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 시 정확한 칫솔질방법 및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대해 교육 후 실생활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교습까지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보건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군과 칫솔질 교육 경험 군에서 구강보건실천이 높게 나타나 Choi 등¹⁷⁾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실천이 칫솔질 방법, 칫솔질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구강보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높이고, 구강보건태도와 인식수준을 향상시켜 올바른 구강건강의 실천이 중요하다⁸⁾. 전공교육으로 구강보건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이 보건계열과 일반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Park 등¹⁶⁾, Choi 등¹⁷⁾, Lee 등¹⁹⁾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공중보건학을 수강한 보건계열 학생보다 일반계열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련 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학교 교육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비록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지만, 부산지역 대학생에 국한되어 대학생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받은 구강보건교육 경험과 구강건강관련특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 치위생학과, 보건계열, 일반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구강건강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일 칫솔질 횟수는 '하루 3번 이상' 치위생학과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칫솔질 방법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하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에서 치위생학

과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2. 대상자의 계열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계열, 일반계열 순으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강보건지식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칫솔질 교육경험 유무($P=0.047$)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보건태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칫솔질 방법($P=0.014$), 혀클리너 사용유무($P=0.043$)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치실 사용유무($P=0.016$), 치간칫솔 사용유무($P=0.025$), 칫솔질 교육경험 유무($P=0.00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보건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캠퍼스 내 보건교육 자원 활용을 도모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며,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수업으로 인해 습득한 칫솔질 방법,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등을 대학생들에게 알맞은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개설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대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Park IS, Youn HJ.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al health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243-253.
2. Song SK. A study of between health student and non-health student compare oral health behavior and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5;9:219-226.
3. Lim JN, Jung YR. Development proposal of oral health educational media based on the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3;13:232-334.
4. Seong JH, Kim DS, Song YH, Chang KW. The effect of professional education in dentistry on the oral health and oral hygiene performance of female students of Gwangju Health College.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2;26:137-146.
5. Ha JE, Kim YH, Bae KH. The effectiv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school nurse in seou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10;34:372-377.
6. Jung EJ.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10;10:1-9.
7. Lee SM, Ha JE, Kim MJ.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in schoo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696-702.
8. Kim YB.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0;27:153-163.
9. Kim GR, Kim M, Kim YS. Undergraduates'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ive to oral health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10;34:178-186.
10. Kang HJ, Lee JH. Compared to experiences and needs of oral health

- education of health-related students and health-unrelated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6;6:557-568.
11. Oh HK, Song YS, An SH, Chun SS.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ninth(2013) web-based survey of Korean youth risk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5;15:999-1007.
 12. Kim YI, Heo HY.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health experience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and their needs for oral-health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2008;10:19-27.
 13. Yoon SU, Lee ES. Convergence research on tooth brushing behavior and oral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7;8:71-78.
 14. Lee MY, Yoo JH. A study on the oral health and oral-health care of some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2008;8:141-151.
 15. Lee JD, Shin DM, Park JT. Oral hygiene knowled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for the students in the public health and non-public health departm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2012;4:447-255.
 16. Park HR, Moon SJ. Connections between the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of certain adults and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of or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300-310.
 17. Cho HS, Hwang SH. Impa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2010;11:7-15.
 18. Yoon JH, Lee MS, Na JB, Kim KY, Hong JY, Kang MY, Kim DK, Jeon SB.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among some Korean soldier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005;31:86-96.
 19. Lee JS, Lee HS.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4;28:331-346.